7 광주일보
제17551호 2006년 9월 13일 수요일

신안 송전선 절단 예인선 선장 구속

신안군 섬 지역으로 공급되는 송전선을 끊어<본보 8월21·22일자> 100억 원의 피해를 입힌 예인선(曳引船) 선장이 구속됐다.

목포해경은 무리한 항해로 송전선을 절단, 신안 일부 섬 지역에 이틀 동안 전기공급을 중단시켜 양식 물고기 등을 폐사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전기공급방해죄)로 인천 선적 138t급 예인선 '현대 쥬베일호' 선장 김모(56·부산시)씨를 12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20분께 신안군 암태도~초란도 사이 수로(水路)에서 바지선(1천827t급)을 끌고 통과하던 중 신고가던 해상 크레인(높이 51m)으로 6만6천㎾의 고압 송전선(높이 29m)을 절단시킨 혐의다.

이날 송전선이 절단되면서 ▲자은·암태면 등 7개면 1만9천여 가구가 정전되고 ▲43어가 55개소의 양식장에도 전기 공급이 끊겨 새우·전어 등 5천949만 마리가 폐사, 1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 김씨가 해도(海圖) 상에 나타난 송전선의 높이를 확인하고도 썰물 때 지나가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잘못 판단, 항해를 하다 엄청난 사고를 냈다"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중국산 '짝퉁' 에쎄·던힐 100만갑 유통시킨 66명 적발

면세 담배를 정품으로 둔갑시켜 팔거나 중국에서 만든 가짜 국산담배를 밀수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 등 6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면세 담배를 사들인 뒤 정품으로 위장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김모(41)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최모(34)씨를 수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4년 9월부터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이 인천항 면세점 등지에서 사온 '에쎄' '던힐' 100만 갑(정품 시가 24억원)을 한 갑당 1천900~2천원에 사들인 뒤 유흥업소 등에 100원가량 올려 팔아 2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씨 등은 담배 옆면 비닐포장에 칼집을 내고 담배이름을 써 넣은 스티커를 밀어 넣어 면세표시(DUTY FREE) 위에 덧붙이는 방법으로 정품인 것처럼 위장했으며, 비닐포장이 찢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위조담배 제조에 쓰이는 중국산 포장기를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주로 담배를 공급한 곳은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한 유흥업소·PC방·성인오락실·탈세를 목적으로 정품 담배를 취급하지 않는 소매점이다.

/연합뉴스

죽어서야 끊은 '도박 중독'

숨진 문흥동 40대, 20년 도박에 가정파탄

유산·회삿 돈·자식 '알바비'까지 쏟아부어
판돈 대출 싸고 아들과 다툼 중 '사고 死'

도박 중독에 빠진 40대 가장은 한 가정을 파경으로 몰아가고, 끝내 자식의 손에 의해 불귀객(不歸客)이 됐다.

지난 11일 오후 광주시 북구 문흥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모(46·무직)씨의 살해범은 고교 졸업 후 군 입대를 기다리던 아들(20·무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 9월12일자 7면〉

숨진 신씨는 11일 낮 문흥1동 사무소에 가서 아들명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아들 인감 증명서를 들고 모 사채업자를 찾아가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사채업자는 "본인이 아니고, (아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8월 상무지구의 사채 사무실 두 곳에서 아들 명의 등으로 500만원을 빌려 썼다가,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적도 있었다.

낙담한 신씨는 집으로 돌아와 다짜고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아들에게 화풀이를 했다.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아들은 심한 몸싸움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방안에 있던 주전자를 집어들고 아버지의 뒷머리를 때렸다.

아들은 아버지가 숨진 것에 놀라 고교 3년 생인 여동생(18)에게 '사랑한다. 다음에 태어나면 행복하게 살자'는 내용의 유서를 썼다. 서러움과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맘을 모질게 먹지 못하고 방황하다 이날 밤 9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에서 아들은, "평생을 도박에 빠져 살아온 아버지가 단란했던 우리 가정을 불행으로 몰고갔다"고 울먹였다.

"아버지는 지난 1998년 지방의 한 영농조합에서 근무하다 회사 공금을 도박에 쓰는 바람에 쫓겨났습니다. 결국 도박 때문에 2001년 어머니와 이혼해 여동생과 나, 아버지 이렇게 세 식구가 어렵게 살았습니다. 물려받은 유산도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고, 어머니와 여동생 등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부담을 떠넘겨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 따르면 아버지가 도박에 손을 댄 것은 20여 년 전. 화투·윷놀이·온라인 포커 등 각종 도박은 취미이자 생활이었다. 심지어는 지난 5월 아들이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60만원을 빼앗아 가기도 했다고 한다. 지난 7월엔 집 근처 사행성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북부경찰은 이런 정황으로 미뤄, 신씨가 이날 사채를 빌리려 한 이유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아들이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혐의를 '존속살인'이 아닌 '존속상해치사'로 낮춰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아들은 "이제 혼자 남은 여동생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며 "장난으로 시작했던 아버지의 도박이 온 가족의 행복과 꿈을 앗아가 버렸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이삿짐센터 창고에 사행성 게임기 숨겨

광주 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직원들이 12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장수동 H 이삿짐센터 창고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압수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호남동에서 게임랜드를 운영하던 김모(31·수배 중)씨는 최근 사행성 게임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10여일 전 50여만원을 주고 이 이삿짐센터에 '자연의 바다' 게임기 60대를 맡겼었다. 경찰은 김씨가 단속이 뜸해지면 게임기를 다시 가져와 영업을 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집행유예로 풀려난 성폭행범 여학생 2명 또 성폭행

광주 동부경찰, 20대 영장

미성년자 성폭행 죄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20대가 또 다시 어린 여학생 2명을 잇따라 성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은 12일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박모(26·광주시 광산구 도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10분께 광주시 동구 A(11·광주 모 초교 5년)양의 집 근처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A양을 흉기로 위협, 인근 주택 옥상으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달 16일 광주시 동구 B(13·광주 모 중교 1년)양 집 근처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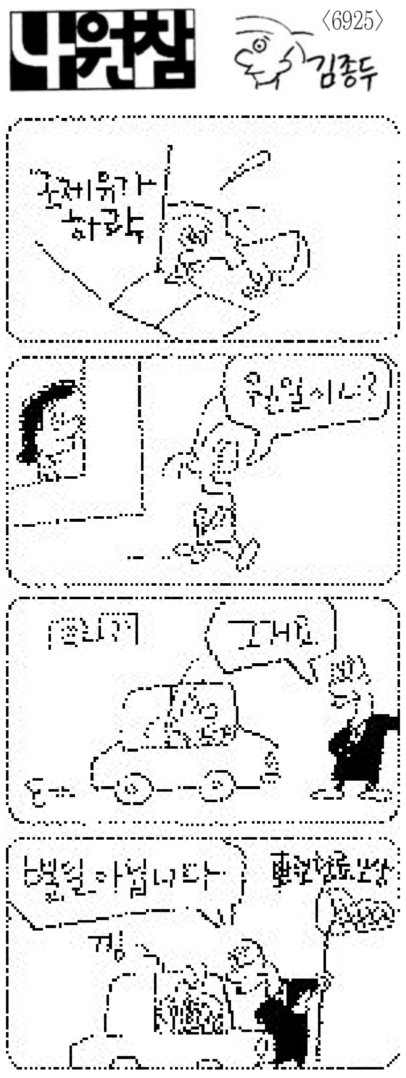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2000년 광주시 광산구에서 10살과 11살 된 여자 어린이를 각각 성폭행해 광산경찰에 붙잡혔으나, 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는 한편, 여죄를 추궁 중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성폭력범 처리 실태=아동 성폭력·상담 치료기관인 '호남권 해바라기아동센터'(소장 신기숙)에 따르면 센터 개설(2005년 6월29일)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간 접수된 아동 성폭력은 모두 172건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된 것은 82건(47%).

혐의가 입증된 용의자 38명 중 대부분은 집행유예(12명) 및 보호처분(8건) 등 가벼운 처벌만을 받았다. 나머지 20여 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자친구와 키스" 소문에 중학생 폭력

쌍나팔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학교 남학생과 키스를 했다는 소문에 격분, 친구들을 이끌고 소문의 남학생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10대들이 경찰서 행.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4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모 게임랜드 옆 주차장에서 M(14·광주 S중 2년)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학교 폭력)로 인근 학교 J모(14)군 등 4명을 12일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J군 등은 최근 학교에서 "M군과 J군의 여자친구(14)가 몰래 사귀고 있으며, 키스도 했다더라"는 소문이 들려오자 M군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